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메야,  
복(福)이 따로 있다.  
뚝심 세고  
부지런하면 사는거지,  
하늘이 물을 대는 천수답(天水畓)\*  
그 논외 벼이삭.

니 말이 정말이데,  
엄첩구나\*  
내 새끼야,  
팔자가 따로 있나  
본심 가지고  
부지런하면 사는거지.

어메야,  
누군 한 평생  
만년을 사나.  
허둥거리지 않고  
제 길로 가면 그만이지.

오냐,  
내 새끼야,  
니 말이 엄첩구나.  
잘 살고 못 살고가 어딴노.  
제 길 가면 그만이지.  
수런거리는 감잎 사이로  
별떨기 빛나는 밤하늘.  
그 하늘의 깊이.

- 박목월, 「천수답(天水畓)」 -

\* 천수답: 빗물에 의하여서만 벼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논.  
\* 엄첩구나: '대견하구나'의 경상도 방언.

(나)

쪼그만 것이	┌
노랗게 노랗게	[A]
전력을 다해 셋노랗게 피어 있다	└
아무 곳도 넘보지 않는다	┌
다만 혼자	[B]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아슬아슬 한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	└
바위 새를 비집거나 잡초 속이거나 씨 뿌려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	[C]
터를 잡고	└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	┌

어둠을 힘껏 밀어내는 떡잎	[D]
그리고 그것들이 한데 어울려 열심히 열심히 한 댕새	┌
세상에 그밖에는 할 일이 없어서 아주 노랗게 노랗게만 피는 꽃	[E]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꽃	└
쪼그만 것이지만 그 크기는 어떤 자로서도 쥘 수 없다 아 민들레! 그래봤자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 한 댕새를 짐짓 영원인 양하고 보라 저기 민들레는 피어 있다	- 이형기, 「민들레꽃」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정한 음보를 반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두 화자의 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청유형 어미를 활용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 화자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해 자연물의 긍정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온 힘을 다해 꽃을 피우는 민들레의 강한 생명력이 나타나 있다.
- ② [B]에는 한계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민들레의 외로움이 나타나 있다.
- ③ [C]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개척하려는 민들레의 노력이 나타나 있다.
- ④ [D]에는 다른 자연물과 한데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민들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⑤ [E]에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이 없는 현실에 슬퍼하는 민들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3. (가)의 내 새끼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모습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강한 의지를 갖고 사는 삶
- ②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사는 삶
- ③ 주어진 팔자에 맞춰가며 사는 삶
- ④ 제 할 일을 하며 부지런히 사는 삶
- ⑤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사는 삶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에는 삶을 대하는 가치 있는 태도가 담겨 있다. (가)에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열악한 농토를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이라 여기며 달관의 자세로 살아가려는 소신과 그에 대한 지지가 드러나 있다. (나)에는 민들레를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허무에 맞서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과 민들레의 내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① (가)의 ‘천수답’을 ‘하늘’이 물을 대는 축복의 땅이라고 보는 인식이 드러나는군.
- ② (나)의 ‘맞새’를 ‘영원’인 듯 피어 있는 모습은 허무에 맞서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피어선 길 수밖에 없는’ 것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민들레의 운명을 의미하는군.
- ④ (나)의 민들레의 꿈을 ‘헛되어도 좋은 꿈’이라고 한 것에는 민들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는군.
- ⑤ (가)의 ‘수런거리는 감잎’은 ‘어메’와 달리 ‘내 새끼’를 지지해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5. 다음 중 (나)에 쓰인 표현 방법이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님은 갓습니다. /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갓습니다.
- ②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 ③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④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는 아직 기둥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⑤ 발길에 눌러 우는 나의 울음도 /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메야,  
복(福)이 따로 있다.  
뚝심 세고  
부지런하면 사는거지,  
하늘이 물을 대는 천수답(天水畓)\*  
그 논외 비이삭.

㉠니 말이 정말이데,  
엄첩구나\*  
내 새끼야,  
팔자가 따로 있다  
본심 가지고  
부지런하면 사는거지.

어메야,  
누군 한 평생  
만년을 사나.  
허둥거리지 않고  
제 길로 가면 그만이지.

오냐,  
내 새끼야,  
니 말이 엄첩구나.  
㉡잘 살고 못 살고가 어딴노.  
제 길 가면 그만이지.  
수런거리는 감잎 사이로  
별떨기 빛나는 밤하늘.  
그 하늘의 깊이.

- 박목월, 「천수답(天水畓)」 -

\* 천수답: 빗물에 의해서만 벼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논.  
\* 엄첩구나: ‘대전하구나’의 경상도 방언.

(나)  
찌그만 것이  
노랗게 노랗게  
㉢전력을 다해 셋노랗게 피어 있다

아무 곳도 넘보지 않는다  
다만 혼자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아슬아슬  
㉣한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

바위 새를 비집거나 잡초 속이거나  
씨 뿌려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  
터를 잡고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

어둠을 힘껏 밀어내는 떡잎  
 그리고 그것들이 한데 어울려  
 열심히 열심히 한 댛새

세상에 그밖에는 할 일이 없어서  
 아주 노랗게 노랗게만 피는 꽃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꽃

㉠ 꼭 그만큼 크지만 그 크기는  
 어떤 자로서도 켈 수 없다  
 아 민들레!  
 그래봤자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  
 한 댛새를 짐짓 영원인 양하고  
 보라 저기 민들레는 피어 있다

- 이형기, 「민들레꽃」 -

6.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사로 시상을 종결해 시적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대화체를 활용해 상반된 삶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방언을 사용해 토속적이고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시 속 인물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1, 2연과 3, 4연이 의미상 대칭을 이루어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7.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민들레의 가치를 모르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민들레는 크기는 작지만 강한 의지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이다.
- ③ 열심히 꽃을 피우지만 결국 질 수밖에 없는 민들레의 모습에서 골계미가 느껴진다.
- ④ 화자는 한계를 딛고 꽃을 피워낸 민들레의 아름다움이 꽃 중에 제일이라고 예찬하고 있다.
- ⑤ 민들레를 통해 이별이 있기 때문에 짧은 만남이 더욱 아름답다울 수 있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메’가 ‘내 새끼’에게 기특한 마음을 느끼고 있음이 드러난 표현이다.
- ② ㉡: ‘어메’가 ‘내 새끼’의 말에 동의와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 ③ ㉢: 민들레의 삶의 의지를 색채 이미지를 사용해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④ ㉣: 아슬아슬하게 삶의 벼랑 끝까지 내몰린 민들레의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⑤ ㉤: 민들레가 작은 크기와 달리 강한 의지와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친근하게 말을 건네고 있다.
- ②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색채 대비를 사용해 선명한 인상을 주고 있다.
- ④ 특정 소재에 대한 화자의 개성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⑤ 시적 대상을 대하는 다른 이들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내 새끼와 (나)의 화자가 나눈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에는 삶을 대하는 가치 있는 태도가 담겨 있다. (가)에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열악한 농토를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이라 여기며 달관의 자세로 살아가려는 소신과 그에 대한 지지가 드러나 있다. (나)에는 민들레를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허무에 맞서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과 민들레의 내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① (가): 제가 농사를 짓던 천수답은 열악한 농토였지만 부지런히 가꾸니 하늘이 축복을 내려 좋은 농토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 ② (나): 당신은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군요. 그런 면에서 당신은 민들레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 ③ (가): 민들레도 끝내 질 것을 알면서도 전력을 다해 피는 것으로 보아 자신만의 소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군요.
- ④ (나): 맞습니다. 저는 그런 민들레처럼 강인한 의지를 지니고 사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⑤ (가): 인간도 민들레처럼 유한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